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0년 제3차 연구기획분과 회의록(5월)

일시	2020. 5. 28.(목) 10:00~12:00	기록	임복희	확인	남상은, 유철호	
장소	화상회의					
참석자	총 16명 중 13명 참석 81.25% - 관 0/2, 민 13/14 (자문-민소영 참석)					
	분과장 남상은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장	교육	위원 소현이	우만종합사회복지관 부장	○
	분과장 유철호	능실종합사회복지관 부장	○	위원 신빛나	광고종합사회복지관 부장	○
	총무 김지은	법률노인복지관 부장	○	위원 오윤진	예산재정과 부팀장	×
	위원 김명진	광고노인복지관 부장	○	위원 이은혜	수원시자원봉사센터 팀장	○
	위원 김분홍	팔달노인복지관 부장	○	위원 조혜진	복지협력과 주무관	×
	위원 김은신	연무사회복지관 부장	○	위원 최정화	호매실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
	위원 김재성	영통종합사회복지관 부장	○	위원 한연주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
	위원 김현민	서호노인복지관 부장	○	위원 황자춘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팀장	○
	위원 문봉군	수원시행복정신건강센터 팀장	○	자문 민소영	경기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배석)	○
자문 김윤희	수원체육문화센터 관장(배석)	×	담당 임복희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팀장	○	
회의주제 및 안건	1. 공유사항 1) 위원 인사 및 마이크 테스트 2) 전차회의 결과 2. 교육 및 질의 1) 수원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축 방안 (하경희 교수님) 2) 논의 : 수원시 특성을 고려하여 커뮤니티케어 추진할 경우 제1 과제 3. 차기회의 일정					
회의결과	1. 공유사항 1) 위원 인사 및 마이크 테스트 - 코로나 상황 대비 기관 개관 준비, 상담 등 비대면서비스 제공 - 우만복지관 : 경기복지재단 우선지원사업 선정, 임대아파트네트워크에서 전수 조사 진행, 지역사회 조직사업 일환으로 소상공인 응원차 화분을 준비해서 방문 - 휴먼서비스센터 : 동별 파트너십, 사례회의 참여 - 자원봉사센터 : 코로나 관련 봉사자분들과 활동. 교육청 협력하여 손소독제 제작하여 배포하려고 함. 공유냉장고 5개 정도 설치 예정 2) 전차회의 결과 : 의견 없음 2. 교육 및 질의 1) 수원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축 방안 (하경희 교수님) - 사례분석 : 서비스 간의 공백과 사각지대 존재,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각개전투,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돌봄 - FGI 분석 : 공공의 책임성 강화, 서비스체계 간의 효율적인 연계·조정·통합,					

지역단위 시범사업을 통한 수원에 맞는 모델 단계적으로 개발,
 대상별·지역별 다양성 고려, 주거·보건·복지의 통합성, 틈새를 메울수 있는
 촘촘한 서비스, 실제적인 인력과 예산의 확보,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체계 및 방안

2) 논의

- 문봉근 : 각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서비스 제공시 서비스 중복과 사각지대 등 발생될 때 조정할 수 있는, 객관적 시선에서 지속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 필요. .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통합 플랫폼 필요하며, 플랫폼 구축을 위한 투자 필요
- 김은신 : 수원시 사회복지 자원이 많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정작 필요할 때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없는 상황 있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이용이 쉽지 않음. 제한 조건이 제도에 의해 막혀있다보니까 통합적 지원이 어려움. 노인이 아닌 경우 노인복지관에서 지원이 안되는 상황 등,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효과가 있을 것임. 현 시스템에서는 맞춤형복지 실현이 쉽지 않음. 커뮤니티케어 추진시 시민의 관점 뿐 만 아니라 추진을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되어 있어야 가능함. 현 상황에서 각 기관에 역할 부여시 어려움 존재
- 최정화 : 연대가 되어야 단계적 접근이 가능할 것임. 연계와 통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정신장애를 동반한 지체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시 사각지대 많음. 커뮤니티케어를 하기 위한 기관들의 연계와 통합에 대한 고민과 실천을 위한 방법 고민 필요
- 유철호 :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누군가 등을 긁어주지는 않을 듯 함
- 민소영 : 예전 FGI에서 협의체 통합서비스지원분과에서 통합적 역할이 가능했다고 들었는데 어땠었는지?
- 임복희 : 협의체 처음 구성시 분과간 연계와 보건복지연계 및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통합서비스지원분과를 구성하도록 함. 7기까지 통합서비스지원분과로 운영하였고, 초기에는 분과에서 사례관리 교육, 솔루션위원회 구성 운영, 실제 사례회의를 진행함. 사례회의의 개최수가 늘어나면서 분과 내에서 처리하기에 어려움과 한계가 존재하여,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센터 구성을 위한 민관 TF를 구성하여 약 1년의 논의를 통해 휴먼서비스센터를 구성하게 되었음. 통합적 운영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이 분과의 역할이라고 생각됨.
- 민소영 : 현장의 의견이 중요함. 첫 번째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고민되는 지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함께 풀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함. 어디서 어떻게 풀까라고 접근하면 좋을 듯함. 수사망, 휴먼서비스센터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는데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역할의 부족인지,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등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임

- 민소영 : 공공의 책임성 강화에서 공공은 누구인가, 공무원만 공공이 아니라 공적 자금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도 공공임.
- 김명진 : 공공성의 개념에 대해 생각하게 됨. 실천현장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하는 지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 있음. 부족한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고민하는 역할을 하는 정책, 협의체 등 컨트롤타워가 필요. 권한과 책임은 어디까지 부여될 것인가, 요청을 했을 때 실천에 대한 한계는 존재함.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역할 필요.
- 하경희 : 전달체계분과에서 현장의 실제적인 고민을 들음. 광고노인복지관 주거-보건-복지 연계에 대한 고민, 마음샘 공동모금회 펀드를 통해 정신장애인 커뮤니티케어 고민, 의료원에서는 퇴원환자 연계 등 현장의 고민들을 가지고 있음. 연구에서 우리의 요구가 원론적인 것들이어서, 커뮤니티케어 시범적 운영을 통해 구체적 내용으로 제한하면 좋겠다고 생각됨. 연구기획분과의 역할 기대함.
- 유철호 : 교육을 통해 연구기획분과에서 조금 더 고민하겠음.
- 민소영 : 위탁, 순환보직 등 바뀌지 않는 상수가 방해물이라면 일단 배제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임.

3. 차기회의

- 일시 : 6월 18일 (목) 오전 10시
- 내용 : 교육 - 서울형SOS센터, 부천형 커뮤니티케어 현황 및 시사점
(민소영 교수님)

※ 전달체계분과 교육 수강 요청사항 공유